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18.(목) 배포 2024. 7. 18.(목)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식물병리학회와 공동학술대회 및 연구 세미나 개최

- 산림생물자원 유래 산림미생물 연구 적극 육성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직무대행 이석우·이하 한수정)은 18일과 19일 양일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파이토바이옴 연구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파이토바이옴은 식물을 비롯해 인체에 사는 미생물과 생태계를 칭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타 생물 및 주변 환경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한수정은 산림생물자원 연구의 지속성장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한국식물병리학회(회장 이선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남대, 동아대 등 11개 대학교 및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생물자원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각종 연구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학술대회를 통해서 ▲University of Toronto, Darrell Desveaux 교수의 ‘메타클론 활용 식물병원성 확인’ ▲충남대 심동환 교수의 ‘살아있고 죽은 전나무에서의 내생과 표면 미생물 군집 비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임종태 산업화실장의 ‘산림생물자원 활용연구 현황과 수목원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연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생물 분야 최신 동향 및 성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산림생물자원 유래 미생물 소재를 통해 산림 복원력 증진과 산업적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책임자	실 장	임종태 (054-679-2730)
	산림생물자원본부 산업화실	담당자	주 임	김다솜 (054-679-063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18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대강당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한국식물병리학회 공동으로 개최한 '파이토바이옴 연구전략 세미나'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임종태 산업화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2. 18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한국식물병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파이토티움 연구전략 세미나’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림생물자원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각종 연구정보를 공유했다.